

1 놀이터 / 낮

(오후, 햇살이 비치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소리. 사남매가 모래놀이를 하고 있다.)

봄: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게임 할래?

동생들이 답한다.

여름,가을,겨울: 응, 좋아! 벌칙은 모래 더미에 빠지기야!

(봄이가 슬래가 되어 뒤돌아선다.)

겨울이가 여름이, 가을이를 모아 작당 모의 중.
가만히 옆에서 바라보며 웃는 겨울이.

그렇게 시작된 게임

봄: (뒤돌아보며) “피었습니다!”

딩그러니..겨울이 뿐.

봄 (두리번거리며) 겨울아, 애들 어디 갔어?

겨울:...(희미하게 웃는다.)

2 미끄럼틀 / 낮

봄이가 미끄럼틀 쪽으로 다가가는 동시에
우다다 소리

봄이: (놀라며) 설마..?!

봄이가 뒤돌려 할 때 툭 소리와 함께 넘어짐

봄이: (일어나며) 푸하!! 범인은 여가케미!

여름,가을: 맞아! 정답이ㅇ..우아악!!

정답이라고 외치던 둘, 비명을 지르며
이번엔 여가케미가 빠져버린다.

봄:(당황) 응? 이게 무슨..설마,

획 고개를 든다.

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겨울이의 사악한 미소..

겨울:(웃으며)응, 내가 빠트렸지.

그 사이 빠진 두 사람..

여름,가을:아 이겨울!! 너 뭐해!! (모래 속에서 일어나며)

가만히 있던 겨울, 두 사람이 잡으러 오자
도망간다.

여름,가을:잡히면 너도 빠진다!(소리치며)

봄이:(이 평화? 로운 승부는 어떻게 끝나게 될까..)

3 집 거실/아침

사남매가 함께 밥 먹는 중

여름:(볼 잡으며) 아야!

봄이:(뚫어져라 여름이를 쳐다본다)

시선을 느낀 여름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난다.

여름: 나, 나 밥 다 먹었어! 먼저 가서 쉴게!(말을 더듬으며)

여름이가 가고 난 후 남은 3명..
머리를 맞대며 비밀 회의를 시작한다.

봄: 아무래도 여름이 치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작전명, 여름이의 치아 검증 프로젝트! 주력은 가을이야! (소리치며 가을이를 가리킨다.)

가을: 내가 뭐 하면 돼? (손을 들며 묻는다)

봄: 간단해! 아픈척 하며 여름이에게 다가가는거야. 그렇게 해서 문제를 알아내는거지!

가을: 알겠어 누나!

볼을 잡으며 아픈 척 여름이에게 접근하는 가을이, 연기를 시작한다.

가을: 아야..(볼을 잡으며)

여름: 가을?? 무슨 일 있어??

가을: 그게, 나 치아가 너무 아파! 치아를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나처럼 될거야..
(아픈 척 고통스러운 목소리로)

여름: ㄹ,뭐?! 치아?! 무슨소리야!!(화들짝 놀라며 도망간다)

도망가버린 여름이를 지켜보고있던 봄이와 겨울이, 이대론 안되겠다 싶었는지 다음 계획을 세운다.

봄이: 다음은 겨울이! 초콜릿으로 여름이를 유혹하는 작전!

겨울: 맡겨줘 언니.

4 집 방/아침

초콜릿을 들고 방으로 가는 겨울.

겨울:(똑똑 노크하며) 여름아, 나 겨울인데 문 열어봐 초콜릿 가져왔어~

여름:(문을 열어주며 외친다) 초콜릿?!

여름이 초콜릿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그때,
겨울이 외친다.

겨울: 지금이야!

숨어있던 가을이와 봄이 튀어나와 여름이를 붙잡는다.

봄,가을:잡았다!

그렇게 붙잡힌 여름이의 앞으로 겨울이가 다가와 억지로 입을 벌려 숨어있던 충치를 발견한다.

봄: 어디 봐!(여름이의 치아를 보며) 누나가 단 거 많이 먹지 말랬잖아!

5 치과/낮

봄이가 여름이를 혼내며, 결국 치과로 끌려갔다. 여름이가 무서워 하는 것 같아
봄이 말한다.

봄: 괜찮아! 누나 손 꼭 잡아!

겉내는 여름이를 위로하지만 막상 치과로 들어가자 봄이가 더 겁을 먹는다.
말은 그렇게 했지만, 치과 특유의 소리나 분위기는 봄이를 겁먹게 하기 충분한 요소..

그렇게 여름이의 이름이 불리며 치과실로 들어가자 같이 따라온 봄이 의사 선생님께 말한다.

봄:선생님..저희 여름이 안 아프게 진료해주세요..(걱정과 떨림이 가득한 목소리)

의사선생님: 아이구~ 괜찮아요. 마취할 때만 살짝 아프지, 누나가 동생 손 꼭 잡고 있으면 전혀 무섭지 않아요!

의사선생님이 여름이의 손과 봄이의 손을 겹치며 말하신다.
덕분에 진정이 된 봄이는 후에 여름이의 마취가 끝나고 밖에서 기다린다.

치료가 끝난 후 여름이 나오자 걱정 가득이었던 봄이 여름이를 꼭 안았다.

여름: 전혀 안아팠어 누나!(활짝 웃으며)

봄:(다행이다,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다..) 그래! 아프지말라구!

여름: ..응. 걱정시켜서 미안해 누나!

1화 끝

